

# 김지사 “고흥, 우주항공 중심지 육성”

## 도민과 대화...장애인종합복지센터 5억 지원 약속 군민 건의에 “두원면 용당-예회간 도로 내년 착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고흥군이 우주항공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고흥군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고흥은 지난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과 5월 누리호 3차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다”며 “전남도와 고흥군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클러스터 예타 조기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와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 송형근·박선준 전남도 의원, 장승명 고흥경찰서장, 문병운 고흥소방서장, 전남도 실·국장, 군민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날 3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5억원의 도비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흥군이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5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민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김영대 예회마을 이장은 “두원면 풍류-용당-대전 해안선 구간은 수려한 남해안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망으로 지방도 단절 구간 연결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 편의를 제 공했다면 한다”며 해안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정성길 도양읍 이장단장은 “도양읍 봉암리 위암국도 77호선 노선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과 선형이 국도 시설 기준에 부적합해 잦은 교통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화 회전교차로 신설 사업을 건의했다.

홍인조 봉래면 예당마을 이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됐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도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22일 오후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흥 드론 임주기업 드론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우주발사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현호 금산면 자율 방재단장은 “고흥군 지역 생산량은 전국 2위이고, 이에 따른 부산물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수거 비용 문제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

다”며 “가공공장 건립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웅 녹동항 항운노조위원장은 “녹동신항은 도내 육상, 해상 거점으로 기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김산업의 세계적 수요 증가로 무역량 급증이 기대되는 만큼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두원면 용당-예회 간 도로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위암국도 문제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 메카인 동시에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거점 도시”라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12개 기관으로 늘린다

市·시의회 ‘인사청문 확대’ 협약...광주테크노파크 등 4곳 추가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열린시민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인사청문 대상 기준을 ‘정원 100명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협약안을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기존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도시공

사·광주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관광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 광주문화재단·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여성가족재단·광주복지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이었다.

이 중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광주복지연구원은 제외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사회서비스원·광주그린카진흥원 등 4개 기관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신설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이 추가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대비 인

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32.5% 수준인데, 광주시는 60.0%(20곳 중 12곳)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협약에는 ▲인사청문 결과 송부 기간 연장(5~10일) ▲폐회 중인 경우의 장 보고로 같은 등 의회 운영 일정 개선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22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8월 중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박재정 기자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려 제정부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투명성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정 기자

# “무안군, 군공항 이전 맹목적 반대 중단을”

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성명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는 22일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맹목적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도와 사회단체에서 진행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과 ‘도민강연회’를 통해 도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무안군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지부는 또 “전남도는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에 투입한 예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남지부는 “무안군은 지역 내 변화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전남도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 찬성 단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선재 전남지부장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남도와 무안군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도,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비 추가 확보...모든 어선 혜택

전남도는 22일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톤수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 10t 미만, 어선원 100t 미만에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10t 이상 어선 680척과 100t 이상 35척을 포함해 총 2만7천척을 지원하게 됐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기존 100t 미만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0t 이상 어선까지 지원 확대한다.

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어선을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0t 미만 어선의 어선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t 이상까지 확대한다. /김재정 기자

# 광주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광주시는 22일 “지진 재난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와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대상은 문화·종교·관광속박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이다.

광주시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재정 기자

아마가세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삿푸

## 일본 규슈 골프여행 2박 3일(54H)

8명 이상 출발 가능 | 항공은 에어부산 OR 진에어(부산/인천 출발)

# 899,000원 부터~ (기사&가이드 팀 4만원 별도)

무안 출발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 양국 정부 인허가 조건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르오니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 **최승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 제 100-000-2023 0227 3586호

◆ 공동조건: 여행경비는 1인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 골프54H, 전 일정 식사 비용(중식 제외), 숙박비 ◆ 최소출발인원: 8명 ◆ 사용골프장: 삿푸노리 G.C, 아마가세 C.C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불포함 사항: 국내수송, 기사 가이드팀별도, 락커비, 클럽중식비, 여권, 개인경비, 골프캐디 ◆ 상의요금은 날짜 및 인원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호텔: 아마가세 유리 료칸(天瀾瀾里旅館)

조이투어

Tel.1522-1901